

丹城面 江樓里出土

高麗靑磁

李 浩 官

一九七五年 四月二日 慶南 山淸郡 丹城面 江樓里에서 埋藏文化財로 發見되어 申告된 高麗靑磁에 對하여 論하고자 한다.

發見된 景위와 장소 및 發見者의 身元을 紹介하며는 一九七五年 四月二日 丹城面 江樓里 番三八四의 一番地에서 진순석(三六歲)氏가 苗圃場을 개간하다가 靑磁一七點을 發見하여 當局에 申告한 것으로서 發見 당시의 상황이나 出土地의 상태 等 여러가지 點에 對하여는 확실히 밝히고 調査할 수 없었던 것이 큰 흠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다만 當局에 申告된 內容에 依據하여 이를 紹介하는 것으로 若干의 未備點이 있다고 보면서 個個의 것을 열거하며 說明하고자 하는 바이다.

一 靑磁陰刻蓮花文梅瓶(圖1)

狹小하고 外反된 口緣部로 造成된 梅瓶으로서 高麗靑磁 梅瓶의 典型的인 樣式과 形態를 갖추고 있다.

梅瓶의 肩部 上面에는 不老草와 類似한 雲文形의 文樣帶를 四個所에 精巧하게 配置하였고 胴體에는 底部에서 부터 上體의 肩部에 이르는 곳까지 陰刻한 蓮花를 配置하고 있다. 蓮花文 사이사이에는 上肩部에 配置한 것과 같은 不老草와 類似한 雲文을 역시 四個所에 交互로 配置하고 있으며 또한 瓶의 口部分에는 陰刻의 雷文帶를 둘러고 있는 것으로 梅瓶은 高麗靑磁梅瓶의 典型的인 樣式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國寶九七

號로 指定된 靑磁陰刻蓮花唐草文梅瓶(註①)과는 文樣만 다를 뿐 類似한 形態이며 또한 그 手法도 비슷한 점이 많은 梅瓶이다.

梅瓶의 釉藥 역시 初期 靑磁時代의 優秀한 發色을 나타내는 靑磁釉色으로 處理돼 있으나 梅瓶의 三분의 一程度 部分의 釉藥이 酸化되어 있고 口緣部 一部와 口部分이 出土當時 不注意로 因해 破損된 狀態로 缺損된 것이 哀惜할 뿐 出土品 中에서는 몹시 優秀한 梅瓶이다.

口徑 六·五cm 高三八cm
底徑 一一·八cm 胴徑 七三cm

二 靑磁陰刻蓮花文四耳壺(圖2)

全體의 인 器形으로 보아 安定된 감을 풍기는 瓶으로서 口緣部는 廣口로 處理하고 若干 外反되어 있다. 또한 壺의 上肩帶 部分에는 菊花文 받침대를 하여 環形의 四耳를 一定간격으로 配置하고 있으나 現在는 四耳 모두가 缺損된 狀態이다.

특히 口緣部 周緣에는 如意頭文으로 陰刻하여 周緣全體를 處理하고 있으며 胴體의 四個處에는 蓮花로 또한 陰刻하여 處理하였다. 특히 國立 博物館所藏 靑磁陰刻牡丹文四耳壺(註②)와 유사한 形態를 갖고 있으며 釉藥의 發色과 技法은 梅瓶과 同時代에 屬하는 靑磁時代의 釉色과 技法을 갖춘 初期의 것으로 推定된다. 또한 胴體에는 靑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잔잔한 水裂이 덮여 있으나 胴體의 대반이 酸化和 脫色으로 因해 釉藥이 脫落되어 있는 것이 흠이다.

口徑 九·五cm 高一二六cm
底徑 一三·八cm 胴徑 六三cm

三 靑磁象嵌牡丹文缸(圖3)

直立한 廣口の 口緣을 갖춘 향아리로서 特殊한 굽받침을 갖추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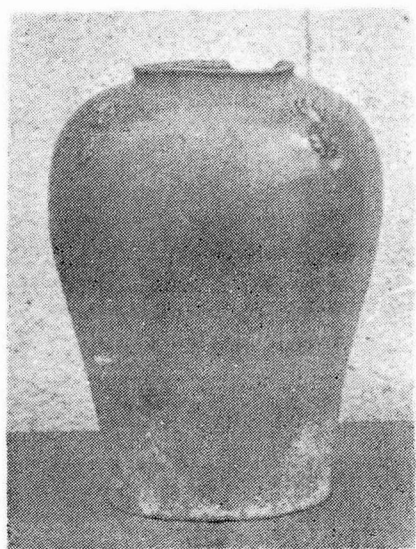


圖 2 青磁陰刻蓮花文四耳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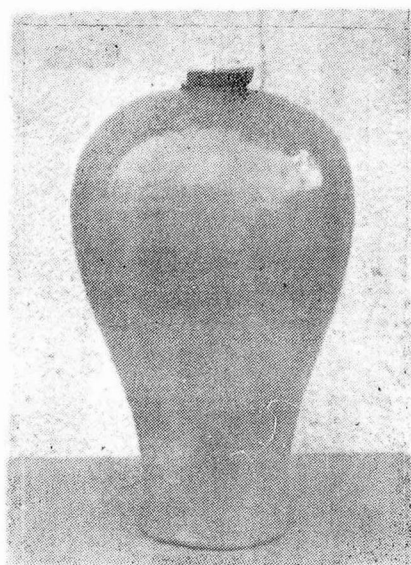


圖 1 青磁陰刻蓮花文梅瓶



圖 4 青磁鴨形香爐



圖 3 青磁象嵌梅花牡丹文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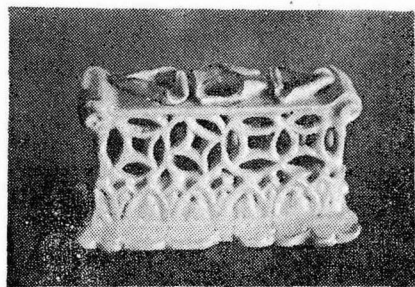


圖 6 青磁透刻筆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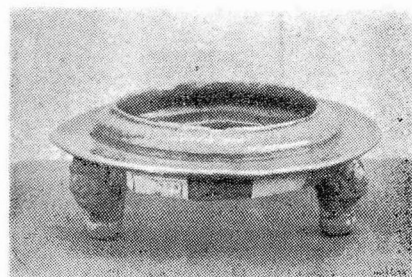


圖 5 青磁缸臺

것이 特色이다. 口緣部 一部分가 缺損되어 있을 뿐 全體的으로 良好한 狀態이며 胴體에는 三個處에 徑二・五cm 정도의 圓形으로 周緣을 黑白象 嵌한 圓內에 梅花를 配置하고 있으며 나무가지에는 竹葉과 유사한 齒으로 處理하고 있는 것이 또한 特色이다. 이상하게도 꽃잎과 꽃이 相異하게 象嵌手法으로 配置한 것도 흔한 例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三個處의 圓廓 사이 사이에 象嵌한 牡丹文을 交互로 配置하고 있다.

특히 향아리의 굽부분에 이르러서는 全體 향아리를 떠 받들고 있듯이 陽刻된 單瓣重葉의 蓮瓣으로 處理한 것이 本향아리의 또한 特色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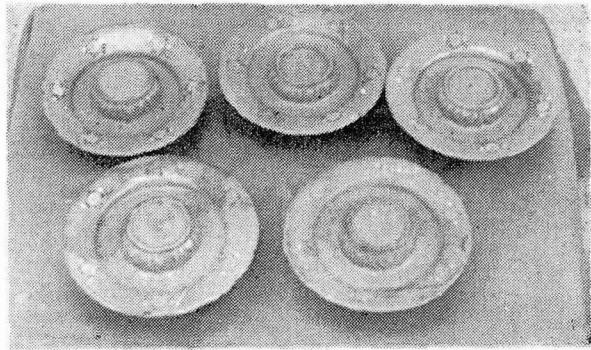


圖 7 青磁象嵌菊花文蓋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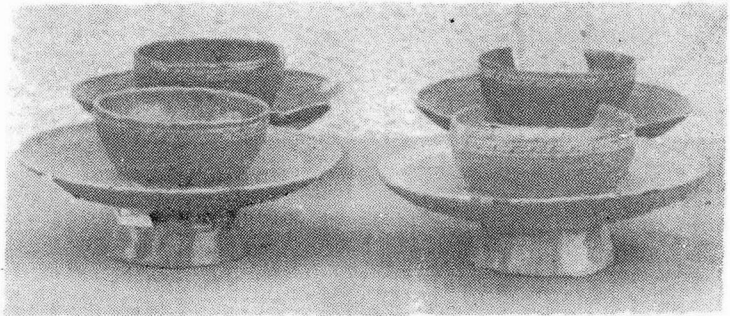


圖 8 青磁象嵌蓋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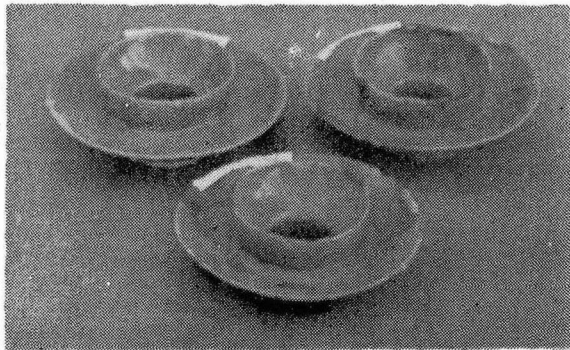


圖 9 青磁蓋臺

하겠다.

國寶 九八號로 指定된 青磁象嵌牡丹文향아리(註③)와 유사한 形態와 釉藥을 갖고 있으나 青磁象嵌牡丹文향아리 보다 우수한 釉藥處理는 아니라도 釉藥의 發色으로 볼 때 象嵌青磁時代의 釉藥과 비슷하게 處理한 향아리이다.

그리고 胴體 全般은 잔잔한 氷裂로 덮혀 있으며 향아리의 二분의 一 정도 部分에 해당되는 胴體部の 釉色은 퇴색되어 있는 것이 梅瓶 등과 더불어 한가지 흠이라 하겠다.

口徑 一三 cm, 高二〇・五 cm, 底徑 一四・八 cm, 胴徑 八〇 cm

四 青磁鴨形香爐〔圖 4〕

青磁香爐의 바깥 部分에는 國寶六〇號 青磁獅子鈕蓋香爐、國寶六五號 青磁麒麟鈕蓋香爐、國立博物館所藏 青磁龍蓋香爐〔註④〕 등과 같이 陰刻으로 된 雲文을 全體的으로 處理하였고 또한 香爐 받침대도 이것들과 유사하게 三個의 獸脚으로 받침대를 造成하였다.

香爐 內部역시 바깥과 同一하게 밝은 青磁釉藥으로 處理하였으며 香爐蓋의 肩部는 如意頭文으로 陽刻處理하고 周邊은 雷文으로 陰刻處理한 뚜껑위에 한마리의 오리를 造成하여 處理한 優秀한 鴨形香爐이다. 現在로서 오리의 尾部部分이 出土時 缺損되어 있을 뿐 全體的으로 完全한 狀態의 香爐이며 香爐全體에는 純青磁時代의 밝은 青磁釉色으로 處理한 우수한 作品이다.

總高二三 cm, 香爐 口徑二〇・五 cm, 全徑二〇・三 cm,

五 青磁缸臺〔圖 5〕

三個의 獸脚으로서 받침臺로 處理하고 받침臺 上部에는 單瓣重葉의 陰刻된 蓮瓣으로 彫飾하고 받침대 周緣上面에는 蓮花를 四곳에 配置하고 있다.

釉藥은 發色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後代에 屬하는 釉藥處理로 본다. 또한 여러부분이 製作當時부터 조각하게 處理하여 器物自體가 龜裂된 部分이 여러곳 나타나고 있는 作品으로서 별로 우수한 作品이 못된다.

全徑 二六 cm, 高九 cm

六 青磁透刻筆臺〔圖 6〕

筆臺의 下部는 雲文받침대 위에 單瓣重葉의 陽刻蓮瓣을 四面에 둘러

고 그위에 國寶 九五號로 指定된 青磁七寶透刻香爐〔註⑤〕의 뚜껑에서 보이는 透刻七寶文으로 處理한 筆臺이며 또한 筆臺의 最上部面은 木工 藝品에서 보이는 經床 上面과 같은 形式으로 處理하였다. 그 中央에 三個의 연꽃이 각각 말리는 듯한 形態로 처리되고 그곳 中央部에 다 筆穴 三個를 配置한 것이 特色이다.

全體的인 器物의 形態나 釉藥은 後期에 屬하는 釉藥處理로 發色이 優秀하지 못한 作品이다.

長 一二 cm, 幅 四 cm, 高 六・八 cm

七 青磁象嵌菊花文蓋臺〔圖 7〕

五個의 同一한 形態의 菊花文을 象嵌한 青磁蓋臺로서 蓋臺의 底部는 六葉의 花葉으로 받침臺의 底部를 이루하고 있고 蓋臺의 上部 周緣部에는 象嵌한 菊花文을 六곳에 配置하고 있으며 받침臺 中央部는 陽刻된 單葉蓮瓣으로 處理하여 蓋받침으로 使用케 하고 있다.

五個의 青磁蓋臺 모두의 釉色은 그렇게 우수한 것은 못되나 末期作에 屬하는 青磁釉藥으로 處理되어 있다.

全徑 一二・三 cm, 高 四 cm

八 青磁象嵌蓋臺〔圖 8〕

中央에 通空을 갖춘 蓋臺로서 底部나 蓋의 周緣部 外部에는 하등의 文樣이 없는 素文으로 處理하고 다만 周緣의 內部面에 白色象嵌의 雷文帶를 둘러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또한 中央의 蓋받침部分 역시 白色象嵌 雷文帶를 둘러고 있다.

四個 모두 一部分씩 缺損되어 完全한 것은 없으나 그중 一個만이 發色이 좋은 釉藥으로 處理되었을 뿐 나머지 三個는 酸化된 狀態의 釉藥으로 되어 있다.

全徑 一三 cm、內徑 七・三 cm、全高 五・八 cm

九 青磁盞臺〔圖 9〕

中央에 通空을 갖춘 靑磁素文盞臺로서 三個 모두 同一한 形態이다.

그중 二個는 釉藥이 酸化되어 黃綠色을 띠고 있고 一個만이 우수한 靑磁釉藥을 갖추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哀惜하게도 三個 모두 周緣部와 盞臺一部分이 缺損되어 完全한 것은 없다.

全徑 一〇・五 cm、內徑 六 cm、高三・五 cm

이상에서 살펴본 靑磁一七點에 對하여 간단히 整理하여 본다면 우선 申告된 資料에 의하면 한 場所에서 一七點이 同時에 出土되었다고 하나 個個 靑磁의 形態나 釉藥의 發色 등 여러가지 점으로 볼때 同一場所에서 一括의 으로 出土되었다고는 보기 힘든 바이다.

그것도 이미 前장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각 靑磁마다 특수한 形態와 樣式이 틀리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짐작케되며 靑磁陰刻蓮花文梅瓶、靑磁陰刻蓮花文四耳壺、靑磁鴨形香爐、靑磁象嵌梅花牡丹文缸 등은 상당히 時代가 올라가는 一세기末~二세기末까지의 유물들로 추정되며 그 以外的 靑磁缸臺、托盞臺 등을 비롯한 數點은 역시 靑磁釉藥處理나 器物의 形態、樣式 및 象嵌手法 등이 상당히 時代가 뒤떨어지는 後代의 作品들이다.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때 時代가 서로 다른 遺物이 同一場所內에서 出土되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본다.

필자가 추측하건대는 靑磁出土地인 丹城面 江樓里 畚三八四—一番地에서 苗圃밭을 개간할 때 그一帶에 封墳없이 分布되어 있었던 高麗民墓가 상당수 遺存하여 오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또한 一個의 墳墓에서 出土되었다는나 보다 여러個의 小形 墳墓들 속에 副葬品으로 埋葬되었던 것을 發見者가 수습하여 同一番地內에서 一

括로 出土된 양 申告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이다.

慶尙南道 晉州 平居洞 高麗古墳群을 비롯하여 晉陽郡、咸安郡、昌原郡、固城郡 등 慶南의 南海岸一帶에는 現在까지도 高麗民墓가 상당량 遺存分布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史蹟으로 指定〔註⑥〕된 곳도 있는 實情이므로 山淸郡 管內에도 發見되지 않은 民墓가 상당량 遺存分布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볼때 山淸郡 丹城面은 물론 이거니와 調査된 바에 依하면 居昌郡 屯馬里 壁畫古墳群을 비롯한 인근의 高麗民墓 등을 하루속히 精確히 調査 수습하여 當時의 墳墓의 形式、副葬品의 內容 등을 精確히 把握함은 물론 慶南一帶에 遺存分布되어 오는 高麗民墓의 歷史의 背景이나 地域의 特色을 考察하여 재차 고증 정리하여야 될 줄로 안다.

〔註〕

- ① 文化財大觀 國寶篇 圖版一一 解說 四四〇P・參照
 - ② 講談社刊 東洋陶磁大觀Ⅱ 單色圖版 四二參照
 - ③ 文化財大觀 國寶篇 圖版一一 解說 四四二P・參照
 - ④ 講談社刊 東洋陶磁大觀Ⅱ 單色圖版 八三參照
 - ⑤ 文化財大觀 國寶篇 圖版九九、一〇一、解說 四二六、四二〇P・參照
 - ⑥ 文化財大觀 國寶篇 圖版一〇九、解說 四三六P・參照
- 講談社刊 東洋陶磁大觀Ⅱ 單色圖版 六二參照
- 文化財管理局刊 指定文化財目錄 八九P・史蹟一六四號 晉州 平居洞 高麗古墳群
- 文化財大觀 國寶篇 四〇六P~四〇九P・解說文參照
- 全國遺蹟目錄 慶南篇
- (文化財管理局 學藝研究官)